

우리 성 대외무역, 안정적인 성장세

지난해 대외무역 수출입액 1,679.1 억원, 전해보다 7.7% 성장

우리 성의 대외무역은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하여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수출시장이 더욱 다원화된 생동한 국면을 보이고 있다. 전 성 대외무역 수출 제품은 점차 전기기계제품, 농산물, 유기화학품 등을 주도로 하는 수출산업을 형성하여 우리 성의 제품 수출 부가가치가 부단히 제고되고 국제시장 점유율이 재빨리 제고되도록 추진하였다.

지난해 전 성 대외무역 수출입은 1,679.1 억원을 실현하여 전해보다 7.7% 성장, 그중 수출은 627 억원으로 24.9% 늘어났다.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은 전 성의 개방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주었다.

최근년간 장춘, 길림, 훈춘, 연길 등 4개 국가급 다국간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가 비준을 받았고 개방 통로

가 빠르게 확장되었다. '장춘-훈춘-유럽' 화물열차, '장춘-수분-유럽' 화물열차와 (TIR) 다국간화물운수해관련리통을 잇달아 개통했다. 훈춘-슬라브안카-넝파 항로는 첫 시험 항운을 실현하였고 훈춘-울라지보스-토크항-가흥 국내 무역 운수 항로 및 대외 운수 항로는 첫 테스트를 완성하였으며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식은 부단히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다.

대외적으로 시장을 확장했다. 지난해 10월 24일, 165 대의 자동차를 실은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장춘 원달철도종합화물장에서 출발해 흑룡강성 동강통상구를 거쳐 25일 후 동유럽 시장에 도착하였는데 전 로정은 근 1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이것은 우리 성이 '장춘-만주리-유럽', '장춘-훈춘-

유럽' 등 중국-유럽 화물열차 통로에 이어 개통한 또 하나의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의 새로운 통로이다.

지난 '쌍 11', '쌍 12' 기간 훈춘 동북아시아다국간전자상거래산업단지에서는 더없이 분명한 경상이 상연되었다. 왕홍 아나운서들이 라이브 생방송으로 앞다투어 '훈자표' 특산물 홍보에 나서며 따라 생방송실의 일당 매출 기록이 날따라 쇄신되고 각 부서 직원들은 스캔, 검사, 분류, 화물 포장 등으로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드바쁘고... 로씨야, 조선과 접경한 개방 최전방 도시인 훈춘은 지역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간전자상거래 실력으로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동북아 다국간전자상거래산업 발전의 신고지를 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성의 다국간전자상거래, 상호 무역 착지 가공, 시

장 구매 무역, 출국 가공 재수입,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수입은 111.6 억원을 실현했다. 이러한 성과는 정책의 정확한 시행 효과이다. 성정부 판공청은 <길림성 투자무역촉진 행동방안>을 발부 실시하여 서비스 보장체계와 국제화 경영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길림성 국가 대외무역 전문승격기지 건설을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출기지가 국제 마케팅, 브랜드 보급, 혁신연구개발 등 전환승격 행동을 전개하도록 지지했다. 지난 한해에 우리 성은 18개 대외무역팀을 조직해 1,000개 기업을 이끌고 해외로 나가 주문을 쟁취함으로써 국제시장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다잡고 2024년 전 성 대외무역의 연속적 발전을 위해 동력을 축적하였다. /길림일보

장춘시 제 25 회 광고산업박람회 개최



장춘시 제 25 회 광고산업박람회 시 기제 및 재료, LED 등 각종 조명 등, 광고선물, 광전기, 인쇄, 원예 조각 등 전체 산업사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이번 광고산업박람회는 브랜드 발표, 신제품 전시, 기술교류, 구매상담, 무역협력을 일체화한 광고업종의 성화로 주목을 끌었다.

장춘시 제 25 회 광고산업박람회 시 기제 및 재료, LED 등 각종 조명 등, 광고선물, 광전기, 인쇄, 원예 조각 등 전체 산업사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이번 광고산업박람회는 브랜드 발표, 신제품 전시, 기술교류, 구매상담, 무역협력을 일체화한 광고업종의 성화로 주목을 끌었다. /류향희기자

2030년까지 녹색공장 생산액 비중 40% 이상으로 올린다

일전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문을 <제조업의 녹색화 발전을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련합으로 발부해 제조업의 녹색 발전 기초 능력을 제고하고 녹색 저탄소 표준기업 육성체계를 최적화하여 2030년까지 각급 녹색공장의 생산액이 제조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도록 할 것을 제기하였다.

<의견>은 2030년과 2035년을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발전 목표를 제기했다. 그중 2035년까지 제조업의 녹색 발전 내생동력이 뚜렷이 증강되고 탄소배출이 최고봉에 달한 후 안정 속에서 하락하며 탄소중립 능력이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글로벌 산업사슬의 공급사슬에서 녹색 저탄소 경쟁 우세가 두드러져 녹색 발전이 신형 공업화의 보편적인 형태로 된다.

<의견>은 전통산업의 녹색 저탄소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신형산업의 녹색 저탄소 높은 기점 발전을 추진하며 제조업의 녹색 융합의 새로운 업태를 육성하고 제조업의 녹색 발전 기초 능력을 제고하는 등 면에서 구체적인 포치를 했다.

<의견>에 따르면 전통산업의 녹색 저탄소 최적화 및 재편을 추진하고 그린수소(綠色氫), 저(무)휘발성 유기물, 재생자원, 산업 폐기물 등으로 원료를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디

지탈화와 녹색화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 저탄소 분야의 전용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모델, 산업용 앱(APP) 등 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녹색 저탄소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혁신 주체로서의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며 녹색 저탄소 분야의 기술 선도 기업과 전형특신(专精特新) '작은 거인'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신화넷

자동차 제조업체 높은 성장세 유지... 신에너지차 수출이 주요 원동력

중국제 1 자동차그룹의 1월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2% 증가한 29만 6,800 대를 넘어선 가운데 '홍기'의 판매량은 82.9% 증가한 4만 300 대를 기록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동풍자동차와 지리자동차의 판매량은 27만 4,000 대와 21만 3,487 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0.2%, 110%씩 증가했다. 비야디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33.14% 증가한 20만 1,493 대를 기록하며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의 선두자리를 유지했다.

지속적인 제품 혁신으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중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1월 해의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제 1 자동차그룹은 186% 증가한 1만 1,529 대, 비야디는 247.5% 증가한 3만 6,174 대의 차량을 수출했다.

중국제 1 자동차그룹 수출입회사 회장 양대용은 '홍기'가 해의 선진 시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등 24 개국에 판매 채널을 열었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신에너지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품의 시장 배

치를 확장, 산업사슬 최적화,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생산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제 1 자동차그룹은 올해 판매량 347만 대, 매출 6,360 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제 1 자동차그룹 아우디신에너지차회사 최고경영자 헬무트 스테트너는 중국의 신에너지차 시장은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화, 효율성, 지속가능 측면에서 업계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림성에 위치한 이 회사의 생산기지는 연간 15만 대 이상의 차량 생산능력을 자랑한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순수 전기차 모델 3종이 올해말까지 생산라인을 가동해 2025년 초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부총기서 허해동은 자동차 시장 수요의 성장 동력은 중국정부가 자동차 산업과 소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한 종합적 조치와 중국 경제의 꾸준한 회복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에도 신에너지차와 자동차 수출이 중국 자동차산업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화사

장춘해관, 고속철산업의 장원한 발전에 조력

길림기성알루미니움업유한회사의 고속철 차체 부품이 2월 20일 상해 남항 부두에서 순조롭게 선적돼 수출길에 올랐다. "회사에서 수출한 고속철 차체 부분은 올해 단독적인 세칙렬번(稅則列號)을 가졌기에 수입국에 들어가는 관세 세금을 이 22%로부터 1.7%로 낮추어졌다." 고 길림기성알루미니움업 국제업무 총감인 손명로는 말했다.

장춘해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고속철 차체는 자신의 단독 수출입 세칙렬번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올해 들어 자신의 공식적인 '신분증 번호'로 수출 신고된 고속철 차체 화물 가치는 이미 1.5 억원을 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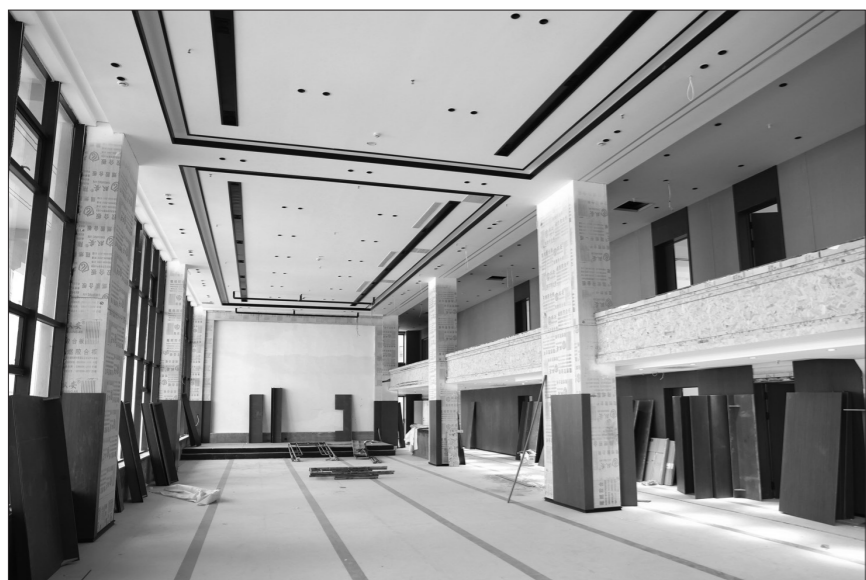
최근년간 고속철 차체 세칙렬번 문제에 대한 우리 성 지방정부, 기업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 데 귀를 기울여온 장춘해관은 업종의 관련 요구를 료해한 후 중점 수출입 기업과 련결하고 해관 관세기술인원을 조직해 현행 고속철 차체 세칙렬번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관총서, 재정부에 적극 반영하여 고속철 차체 세칙렬번문제를 년도 중점 세정 조사연구 과제에 포함시키도록 쟁취했다.

현지 조사연구를 통해 기업 전문가의 의견과 건의를 쟁취한 기초에

서 장춘해관은 또 분류 전문인원을 조직하여 케도패스 국내표준과 기업 표준 등을 조사 확인하고 국내표준 수출길에 올랐다. "회사에서 수출한 고속철 차체 부분은 올해 단독적인 세칙렬번(稅則列號)을 가졌기에 수입국에 들어가는 관세 세금을 이 22%로부터 1.7%로 낮추어졌다." 고 길림기성알루미니움업 국제업무 총감인 손명로는 말했다.

이런 고속철 차체의 단독적인 세칙렬번은 우리 성의 수출입 세칙번호 증가 '0'의 돌파를 실현하여 해관이 업종의 수출입 수치를 정확하게 통계하고 분류 쟁의를 줄이는 데 편리를 줌과 동시에 우리 나라 고속철 차체 수출의 규모화와 규범화를 촉진하고 중국 고속철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며 고속철산업의 국제적 발언권을 높였다. /길림일보

연길시, 건설중 프로젝트 '화끈한 출발' 기세



연변만통의료양생재활센터

연길시의 연변만통의료양생재활센터 건설, 관당온천호텔 건설, 세포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낡은 구역 B24 건설 등 11개 프로젝트 건설이 2024년 전력으로 '화끈한 출발' 기세를 몰아가고 있다.

부지면적이 1.3만 평방미터, 건축면적이 4.6만 평방미터로 연길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현대적인 설계로 꼽히는 연변만통의료양생재활센터가 5월 부터 록속 운영에 투입될 전망으로 후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 책임자 채춘봉에 따르면 이 센터에는 총 1,000 개의 의료, 양로 침대에

120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양로 아파트가 포함되며 '의료 + 양로'를 핵심으로 로인에게 진료와 간호 지원을 제공한다. 로년성 질병 및 다발성 질병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전업팀을 배치해 진료와 관리를 진행한다. 이를테면 실지(失智)로인중심, 육창치료센터, 호스피스병실 등이 설치돼 전문화 봉사를 제공한다. "양호한 양로환경 조건을 창조하여 전 시 및 주변 지역 사회와 양로 수요를 만족시키며 지역의 다양한 양로봉사기구의 발전을 추동하게 된다."

연길관당온천호텔 공사장은 현재



연길고신기술개발구 세포산업단지

외장, 내장 공사가 진도를 내고 있다. 5.6만 평방미터 되는 면적에 5.95 억원 투자 규모로 되는 이 호텔은 연변에서 유일하게 드넓은 수영장을 갖추고 호텔, 보통 객실, 가정형 스위트룸, 정원형 객실 설계로 숙박, 온천, 회의, 오락을 일체화한 윈스투 휴가호텔로 주목되는데 역시 5월부터 운영에 투입될 예정이다. "모아산(공룡) 문화관광구 등 주변 풍경구와 련동하며 양생온천, 레저관광, 생태주거, 휴양휴가를 주제로 하는 관광승차로 관광객들의 주시행 일체화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프로젝트 총관리

류문명은 말한다. 총 투자액이 7억 3,000 만원에 달하는 연길고신기술개발구 세포산업단지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이미 주체시공 및 내부장식 공사를 완수하고 현재 설비 구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2.5 일 투자로 건설되는 연길시 낡은 구역 개조 B24 프로젝트도 이미 입찰 예정이라고 한다. "모아산(공룡) 문화관광구 등 주변 풍경구와 련동하며 양생온천, 레저관광, 생태주거, 휴양휴가를 주제로 하는 관광승차로 관광객들의 주시행 일체화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프로젝트 총관리

/연길시당위 선전부제공

인민은행 길림성분행, 현대화농업 발전 지지 등 30 가지 의견 발부

-인민은행 길림성분행, 길림 전면 진흥이 술선적으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것을 지지할 데 관한 지도의견 발부

일전 인민은행 길림성분행은 <근거한 통화정책을 깊이있게 관철 실시하고 금융 지원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길림의 전면 진흥이 술선적으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것을 지지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제정, 발부하여 길림 전면 발전을 위해 량호한 화폐금융환경 창조하기, 다섯편의 문장을 잘 짓기 등 방면의 30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1 주 6 생' 고품질 발전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는 것을 둘러싸고 '4 대 산업 집군'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6 신산

업'을 발전시키고 '4 신시설'을 건설하며 신용대출의 투입 강도를 높이고 대출의 합리적이고 적당한 성장을 유지한다. 신용대출 방출을 균형적으로 하고 신용대출 방출 질주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통화정책수단의 총량과 구조의 이중 기능을 발휘하여 중점 분야에 적극적으로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과학기술혁신 금융 봉사의 질적 효과를 적극 제고하고 길림성 특색을 띤 현대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과학기술 령역에 대한 금융 봉사 능력 제고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과학창조 분야에 대한

금융 봉사의 질적 효과를 향상시킨다. '금융길과'(金湖吉科) 행동을 전개하고 혁신 강도를 높여 길림성이 현대화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도록 지지한다.

제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도를 높이고 향촌 진흥 금융봉사를 잘하는 면에서 <의견>은 이렇게 밝혔다. 제조업에 대한 금융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자동차, 선진 케도교통장비, 광전자장비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강도를 높여 제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녹색화 전환 과정에서 융자 수요를 적극 만족시킨다.

랴강안전 금융 보장 사업을 잘하고 '전역근 랴강' 생산능력 건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중저업, 고품준 농도건설, 흑토지 보호, 수리기초시설, 봄갈이 준비, 추곡 수매 등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1 현 1 업' 금융 지지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현역이 우세를 지니고 특색이 있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지한다. 옥수수, 벼, 고기소, 양 사육 등 10 대 산업집군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길림성 농업이 큰 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한다.

/길림일보